



이국생활을 통해 다시 찾은 정(情)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 창 곤 | 한겨레 사회부 기자

이국에서 맞게 된 새해 소망은 바로 그동안 잃었던 가족의 소중함이고 웃음 가득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린지 10년. 돌아보면 남편으로 아버지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슴을 느끼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시작한 영국에서의 생활은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은 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리 하나 할 줄 모르던 사람이 매일 부엌을 찾게 되는 변화가 생겼으니깐요.

새해 소망, 행복한 가정 만들기

또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에 현기증이 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꿈결처럼 사라졌으며, 다가올 수십 년도 그럴 것 같아 무섭증마저 듭니다. 이맘때면, 사람들은 으레 목표를 세우거나 뭔가를 다짐합니다. 비록 꿈이라도 계획을 세운다는 건 좋습니다. 지난 날을 반추하며 할 일을 가늠해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현듯 지난해 첫날이 떠오릅니다. 아들과 함께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한 해를 열었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행주산성에 올랐습니다. 아들과 함께 새해를 맞은 건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올해는 이국에서 새해를 맞게 돼 더 새롭습니다. 재충전을 위해

공부하러 온 영국 제2의 도시, 버밍엄의 언덕을 온 가족이 함께 오릅니다. 가족이 다 함께 일출을 보며 새해를 맞는 것도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2004년의 제 목표는 '가족과 친해지기'입니다. '웃음 가득한 가정 꾸리기'입니다. 12년의 직장생활 도중에 얻은 귀한 연수기간이지만 사실은 공부보다 아이들의 맘을 얻고, 얼어붙은 아내의 가슴을 녹이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싶습니다. 가정을 꾸린 지 10년. 돌아켜보면, 참으로 자기 중심적이며 건조한 가장이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아이들에게 아빠의 따뜻한 가슴을 느끼게 하질 못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눈 인상적인 추억? 별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도대체 뭐냐? 당신 삶에 우선 순위가 뭐냐? 언제 한번 제대로 아이의 심성을 들여다 본 적 있느냐, 나와 단1분이라도 마주보고 대화 나눈 적 있느냐? 막내 녀석이 밥을 제대로 못 먹는 데 신경 한 번 써 봤냐? 밖에서는 정의와 평등을 외치면서, 정작 내 가정의 정의와 평등에 대해 얼마나 생각을 해봤느냐?"

아내의 '청문'에 답을 찾지 못해 그저 우두커니 서 있는 초라한 가장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나한테 불만이 많은가 보다' 라며,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쁜 남편의 직업을 이해 못해주고 사치스런 투정을 한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돌적이며 직접적인 그녀의 물음은 날이 갈수록 찾아졌고, 강

도가 높아갔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정의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그럴 만도 합니다. 집이라곤 여관집 마냥 거의 매일 밤 늦게 들어가고 나가기 일쑤. 아이들 숙제 한번 제대로 살펴주거나, 휴일 맞아 근교에 함께 놀러 간 추억도 기억이 가물하니까요. 더욱이 다 같은 직장인데, 누구는(아내는) 회사 일 마치자마자 득달같이 집에 와서 어머니 밥상 차리고 아이들 씻기는데, 누구는 술에 취해 들어 오거나 약속 있다며 밤 늦게 들어오는 게 다반사이고, 아내와 차 한잔 놓고 대화 한 차례 나눈 일도 거의 기억나지 않군요.

가정을 위한 새로운 시작

영국에서의 가장 큰 개인적 변화는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라면 외에는 요리라고는 해 본 적 없는 경상도 양반집 후손(아내의 딸)'이 거의 매일 부엌을 찾는 것입니다. 아직도 된장국 하나 끓이는게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제법 그럴듯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새벽 시장도 보고, 아이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축구도 가끔 합니다.

때로는 그저 함께 웃고 떠들며 노는 것이 아이들은 물론 저한테도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학습장애 상담소까지 찾은 큰 아이, 마지막 기회라 선전포고를 하며 영국행에 오른 아내' 모두, 4개월 가까이 되는 지금, 조금은 마음의 문을 연 듯 합니다.

새삼 깨닫는 건 가정의 위기는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에서 오는 게 아

니란 것입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소통과 교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부족이 균열의 원인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정의 경영자로서 자신의 책무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성찰이 없었기 때문이란 반성도 가져 봅니다. 가족은 어쩌면 우리 모두 가장 역점을 두고 투자 해야 할 자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4년의 또 하나의 목표는 적어도 한국 요리 10종은 완벽하게 소화한다는 것인데, 어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